

여수 돌산지구 드론 활용 불법개발 막는다

시의회 난개발조사위 실태 파악 항공사진 등 자료 수집 확보 행정선 이용 현장 점검 병행

여수시의회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는 돌산 지구 개발행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항공사진 등을 확보하는 등 심도있는 실태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9일 확보한 항공자료를 토대로 개발행위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가려내고, 불법개발이 의심이 되는 곳은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난개발조사위는 지난달 21일 토목-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행정선을 타고 해안가 개발행위 상황을 조사한데 이어 지난 2일까지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불법훼손이 이슈화된 이후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를 위해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조사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산지역 전체 허가건수 295건 중 단독주택, 우량농지, 축사 등을 제외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 57건에 집중하며 산지전용을 포함한 개발행위와 건축행위 등의 허가 관련 사항과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현장점검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토의와 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거친 후 효율적인 복구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현수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지를 위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 동일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조사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의회가 돌산지구 개발 현장에 드론을 띄워 난개발 실태파악에 나섰다.

<여수시의회 제공>

곡성군, 학교급식 공급업체 곡성·옥과농협 선정

6억7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급



곡성군은 최근 학교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곡성농협과 옥과농협을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올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34개교를 대상으로 총 6억7000만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의회의에는 곡성군의회와 곡성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급식단체, 생산자 대표 등 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심의 결과, 쌀 공급업체에는 곡성농협이, 부식 공급업체에는 옥과농협이 선정됐다.

심의회는 또 친환경 축·수산물, 유기농식품, 전남지사 품질인증 제품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30% 이내 공급을 허용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품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광양 매화축제 올해도 취소 "매화마을 방문 자제해달라"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광양매화축제를 취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화 축제를 취소하는 한편, 축제가 열렸던 매화마을에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양시는 매화마을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을 통해 방문 자제를 홍보하기로 했다.

축제 취소에도 상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매화마을 일원에는 집중 방역을 하고,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 불법 음식점을 단속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광양매화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내년에는 광양매화축제가 열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생필품 필요한 분 가져 가세요"

순천시, 무료나눔 권분가게 운영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순천시민이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권분가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권분(勸分)가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1인당 월 1회,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무료 나눔가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순천형 권분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순천시를 만들어나가는 뜻을 담아 '권분가게'로 이름 지었다.

지원 물품은 쌀·햇반·라면 등 식료품과 휴지·세

제·샴푸·린스 등 생필품이며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과 기부를 통해 채워진다.

권분가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권분가게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용자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된 맞춤형 복지상담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는 권분가게 이용을 희망하지만 심한 장애가 있거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단체에서 신청자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배달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9일 개장한 권분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이웃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코로나

19로 순천시민 한 명이라도 배고픔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

정현복 시장 "의회와 상의해 추진" 시기와 금액 규모 등 검토 나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남에서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남 광양시가 올해도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기와 금액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경제 살리기에 효과가 있을 그런 타임(시기)에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방역단계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규모나 지급 시기는 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의 관심이 큰 재난지원금 규모는 인근 시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여수시도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광양시는 지난해 4월 1인당 20만원씩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했다.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경예산에 304억원을 책정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카드 단말기를 갖춘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형 마트, 식당 등 9천여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광양시가 한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 장소는 마트와 동네 슈퍼, 편의점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5.8%, 주유소가 9.7%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11%가량 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55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47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17명으로 분석됐다.

광양시의 한 공무원은 "시 재정 자립도가 전반기에는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여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다"며 "15만명에게 30만원씩 지원하려면 4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홈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아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